

## 한국불교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계종, 오는 8월 6일 등재 추진위 공식 발족

한국의 전통 사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조직이 공식 발족된다. 이에 따라 전통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해일)는 7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을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충무역 지하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7개 사찰을 대상으로 올렸다. 선정 결과 발표 당시 국가브랜드위원회 전문가협의회 위원 장적 스님은 "더 많은 사찰이 등록됐으면 했지만, 등재를 위한 국제적 보편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월정사, 송광사는 6.25 동란을 거치면 많은 전각들이 전소됐고, 금산사도 화재 이후

통도사 등 7개 사찰 대상  
2018년 최종 등재 목표  
12개 지자체와 MOU 체결  
업무 교류 및 활성화 기대  
관련 세미나·연구 사업 진행

훼손이 심했다. 주로 건축물과 사격이 잘 보존된 곳을 위주로 잠정 등재 목록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7일에는 '한국의 전통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됐다. 이번에 발족되는 추진위는 발족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등재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7년 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열

어 등재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고, 유네스코 현지 실사를 거쳐 2018년 등재를 최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문화재청과 12개 지방자치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사업의 추진 근간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 간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각 지자체가 출연한 1억원과 종단 자부담 1억원 등 매년 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전통산사의 세계 유산 등재의 가치로 선·교 융합의 독특한 형식과 현재까지도 승가 공동체의 생활 문화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역동성을 꼽고 있다. 실제 2012년 9월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 한 존 허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한국의 사찰은 인도로부터 불교가 전파되는 동안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핵심 원리, 즉 종교철학이 옹골개 전승돼 왔다는 사실에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입구부터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찰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7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세월호 유가족이 헌화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 “생명가치 우선인 세상을 만듭시다”

종단협,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 맞아 추모 위령제  
자승 스님 “유가족·국민이 납득할 특별법 제정돼야”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100일 맞아 불교계가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7월 24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월호 참사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세월호 유가족 10여 명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등

불교계 종단 지도자와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령제에서 자승 스님은 성장과 물질에 전도되어 생명가치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

들과 국민 다수가 납득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면서 "생명의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가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도 돈이 아닌 사람이 중요시 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권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이미 사람의 목숨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것 같다"면서 "본래대로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교가 보여준 지지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교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알고 있고 조계종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면서 "생명의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가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이 따뜻함을 힘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령제에서는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목 스님의 집전으로 천도 의식이 봉행됐으며, 유가족의 헌화와 불교계 지도자 스님들의 분향 등이 이뤄졌다. 한편, 진도 팽목항에서는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 韓中日 불교도 도라산서 세계평화 기원

종단협, 이사회서 보고... 11월 18~20일 서울 일원

한중일 3국의 불교도들이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7월 17일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 일정을 공유했다. 종단협 사무처가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7차 교류대회는

11월 18일~20일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불교사상에서의 평화의 실천'을 주제로 열린다. 대회는 18일 흥운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환영만찬, 19일 오전 9시 국제학술강연회 뒤 오후 남북 분단의 현상인 판문점과 땅굴 방면에 이어 도라산 전망대에서의 세계평화기원법회, 공동 합서체결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 1003호 INDEX

연중 기획 5  
탐진치 줄이기- 행복으로 가는 길

종합 2·3  
불교환경의제21 변화 주제 토론회  
선학원 분원장 회의 놓고 신경전  
'오대산 명상 지구' 특구화 필요  
BBS TV 뉴스, 라디오로도 청취

새연재 14  
화엄의 꽃 절집정경

불교로 읽는 고전 24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 세월호 유가족 '힐링' 위해 템플스테이 무료 개방

유가족 대책위 협의 후 진행  
안산 중·고교 학생·교직원은  
9월 19일까지 13개 사찰서  
9월부터 일반인도 참여 가능

한국 해양 사고 중 가장 아픈 역사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국민과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며 "특히 세월호 유가족 및 안산시내 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템플스테이는 가족 대책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산청 대원사와 용인 법륜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운영 형태는 온전한 휴식형 템플스테이

로 참가일수는 자율이며, 사전 신청을 하면 스님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안산시 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무료 템플스테이는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아생여당'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3개 사찰에서 최대 2박 3일까지 가능하다. 운영 형태는 휴식형을 기본으로 하되 요청할 경우 다른 체험 프로그램도 결합해 진행할 수 있다. 일반 국민에게도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전국 110개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전체에서 이뤄지는 무료 템플스테이는 '가족이 함께 하는 토닥토닥 템플스테이-희망을 말해요'를 주제로 이뤄지며 초·중·고교 자녀와 함께 하는 4인 이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9월 1~19일동안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으며, 일방인 대상 무료 템플스테이는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참가일수는 1박 2일 한정이다. 신성민 기자

디자인 등록원

#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 불 샵  
단독입점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